

영상 구성

붉은 수수밭이란 영화의 탄탄한 구도는 절제된 카메라 워킹과 함께 작품에 빛을 내주고 있다. 촬영을 전공했고, 촬영감독으로 영화에 입문한 장예모 감독의 영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각은 스토리텔링이 전하는 감동에 있어 이루 말할 수 없이 훌륭하다. 1987년 발표된 ‘붉은 수수밭’은 이 시대에서 흔히 보여지는 <Dolly in/out>과 <Zoom in/out>은 찾아보기 힘들며, 절제된 카메라 워킹으로 구성된 영상은 지금의 현란한 현대의 영상과는 거리가 먼 구성이나, 감동이란 매개에 있어선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

관객의 시선을 강제로 유도하는 카메라 팬은 극히 제한적이며, 개연성을 강요하지 않는 점. 그리고 카메라 워킹 이전에 표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공간 구성력과 안정된 배치, 구도는 관객의 몰입도를 높인다. 지금은 선호하지 않는 기술이긴 하나, 이런 영상구성은 지금이나 미래에도 관객으로부터 호응을 얻기엔 전혀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줄거리

18세의 어여쁜 추알(공리 분)은 가난한 죄로 나귀 한 마리와 맞바뀌어 50이 넘도록 독신으로 있는 양조장 주인인 리서방에게 팔려간다. 사랑도 모르고, 남편의 얼굴은 더더구나 모르는 채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향한다. 흔들거리는 가마 문틈으로 보이는 추알의 가족신에게 가마를 댄 유이찬아오는 눈 뿔 줄 모르고, 가차 없이 내리쬐는 햇볕으로 가마꾼들의 벗은 상체가 번들거린다.

유이찬아오의 우람한 몸을 보면서 추알은 야릇한 흥분을 느낀다. 드디어 산행길에 올라 친정으로 가던 날, 젊은이들은 붉은 수수밭에서 뜨겁게 땀을 흘린다. 남편이 살해되는 바람에 과부가 된 추알이 혼자 힘으로 양조장을 재건한다. 친정에 가는 날, 수수밭에서 그녀를 범한 유이찬아오는 그녀와 동침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떠벌려 그녀를 괴롭히고 새로 빛은 고량주에 오줌을 누는 등 말썽을 피운다. 그리고 추알을 덮쳐 안아들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안채로 들어간다. 그런데 유이찬아오가 오줌을 누 고량주는 어느 해보다 맛있는 고량주가 돼 18리 고량주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얻게 된다.

유이찬아오가 추알의 남편으로 양조장을 돌보게 된 뒤, 양조장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일꾼인 라호안이 사라진다. 그로부터 9년 뒤 갑자기 들이닥친 일본군에 의해 마을의 평화가 깨지게 되고, 수수밭은 군영 도로를 만들기 위해 베어지고 항일 게릴라로 활동하던 라호안은 산 채로 잡혀 가족이 벗겨지는 형벌 끝에 죽고 만다. 분노한 마을 사람들은 고량주에 불을 붙여 기관포를 앞세운 일본군과 싸운다. 전투 중에 추알이 일본군의 기관총 세례 아래 쓰러진다. 뒤늦게 터진 폭탄으로 수수밭은 온통 화염에 쌓인다. 삽시간에 수수밭은 피로 물들고 대지 위에 불사조처럼 유이찬아오 부자가 우뚝 선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로 피덩이 같은 붉은 해가 이글거린다.



붉은 수수밭 중

한 번 더 보기

붉은색—레드—컬러에 관련한 이 영화는 시종일관 붉은 색을 띄고 있다. 이렇게 통일된 컬러의 영화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이 시린 불편감이나 작위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나 이야기의 구조상 레드의 외로움에 관해 이야기 하고 있기에, 영상적인 면모로 보나 줄거리적 면모로 보나 <레드>의 대표적 작품으로 꼽을 수 있겠다.

<붉은 수수밭>은 사건 하나라도 강렬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건들이 각자의 생기를 뿜어 호흡을 내뿜고 있다. 인물들이 각개의 감정 본능에 충실하며 솔직한 면모를 볼 수 있는데, 그로 비롯된 행동들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나 그 솔직함으로 만들어진 장면 하나하나가 직접 숨 쉬며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하다. 그들의 순수함, 우월감, 순박의 자랑스러움. 그리고 땀방울과 술방울. 노래와 액션이 어우러지는 시원함까지. 답답하게 채면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달라 카타르시스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 <붉은 수수밭>을 보고나면 잔상이 떠나질 않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기억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순수한 감정이, 열정이, 욕망이 너무나 생생해서가 아닐까.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순수한 에너지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순수와는 거리가 먼—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감독은 그런 시대적 메시지까지 이 영화에 담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